

‘캐시카우’ 화학·유통 부진… 인적쇄신 넘어 생존본능 발동

롯데그룹, 창사이래 최대 인사

케미칼, 3분기 누적손실 5096억
그룹 효자서 재무부담 1순위로
쇼핑, 3분기 당기순손실 487억
신동빈, 계열사 ‘각자도생’ 메시지

롯데그룹이 단행한 ‘부회장단 전원 용퇴’와 ‘CEO 30% 교체’라는 초강수는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그룹의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그룹을 지탱해 온 양대 축인 화학과 유통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기존의 관리형 리더십으로는 현재의 복합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신동빈 회장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인사 칼바람의 가장 큰 진원지는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진이다. 롯데케미칼은 중국의 대규모 석유화학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창사 이래 가장 흑독한 시기를 보내



롯데가 실적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칼바람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 /롯데

고 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509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거 그룹 이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던 효자가 이제는 그룹 전체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나돌았던 ‘롯데그룹 유통성 위기설’의 배경에도 화학 부문

의 부진과 이에 따른 계열사 지원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유통 명가의 명성도 위태롭다. 롯데쇼핑을 필두로 한 유통 부문은 내수 소비 침체와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습, 쿠팡의 독주 속에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3분기 롯데쇼핑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8% 감소한 130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3조4101억원으로 4.4% 줄어들었고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백화점 부문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경쟁사 대비 성장세가 둔화됐고, 롯데온(e커머스)은 출범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며 시장 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외부에서 영입된 김상현 부회장 체제 하에 체질 개선을 시도했으나, 급변하는 유통 트렌드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냉정한 평가가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 중심의 헤드쿼터(HQ) 체

제가 폐지된 것 역시 이러한 실적 부진과 무관치 않다. 롯데는 2021년 말 기존 비즈니스 유닛 체제를 해체하고 HQ 체제를 도입했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각 사업군에 HQ를 두고 총괄대표가 인사·재무·전략 등 핵심 기능을 통합 운영했다.

그러나 HQ 체제는 계열사의 빠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기민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조직이 ‘관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신회장은 조직의 균살을 빼고 각 계열사가 ‘각자도생’의 각오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롯데가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되지 않는 한계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확보된 현금으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홈플러스가 주말 4일간 제철 먹거리를 할인하는 CRAZY 4일 특가를 진행한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제철 먹거리 할인 CRAZY 4일 특가

홈플러스가 27일부터 30일까지 주말 4일간 제철 먹거리를 할인하는 CRAZY 4일 특가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까지는 따뜻한 국물 요리 재료를 선보이는 탕!탕!탕! 페스타도 함께 연다.

CRAZY 4일 특가에서는 미국산 옥맥돼 삼겹살과 목심을 과격가에 선보인다. 7대 카드로 결제 시 딸기와 캐나다산 보맥돼 삼겹살·목심을 50% 할인하며, 특란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는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과 농협 안심한우 구이류 전 품목을 반값에 판매한다. 제철을 맞은 남해안 생굴, 알배기 배추, 꿀밤고구마, 제주 밀감 등도 할인가에 내놓는다.

겨울철 국물 요리를 위한 탕!탕!탕! 페스타에서는 매운탕을 테마로 다양한 수산물을 할인한다. 멤버십 회원은 국내산 생물 대구, 동태, 생물 아귀, 생물 병어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손종욱 기자

CJ제일제당

‘PHA’ 상용화 가속 생분해성 빨대 등 출시

CJ제일제당이 독보적인 발효 기술로 개발한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가 국내외 산업계 전반으로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CJ제일제당은 PHA를 적용한 ‘뿔아쓰’는 생분해 위생행주, ‘생분해성 빨대’ 등을 국내외에서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PHA는 퇴비화가 가능해 ‘탈(脫)플라스틱’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에 미세 플라스틱을 잔류시키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뿔아쓰는 생분해 위생행주’는 PHA, PLA, 펄프를 혼합해 생분해성 소재로만 개발됐다. PHA를 위생용품에 적용해 상업화한 전 세계 첫 사례로 CJ제일제당과 유한킴벌리, 부직포 전문기업 유진한일 합섬 3사가 협력해 개발에 성공했다. 석유계 소재가 하나도 쓰이지 않아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 제품은 국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45일만에 표준물질인 ‘셀룰로오스’ 대비 90% 이상이 생분해되는 결과를 얻었으며(ISO 14855 기준 충족) 시중 마트 등에서 크리넥스 브랜드로 출시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딸기 등 제철과일·홈파티 먹거리 할인

내달 3일까지 ‘윈터 해피딜 기획전’ 한우·생연어·가성비 와인 등 준비

롯데마트가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윈터 해피딜 기획전을 열고 딸기 등 제철 과일과 홈파티 메뉴, 크리스마스 용품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팩 딸기 전 품목을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3000원 할인한다. 설향, 금실, 비타베리 등 인기 품종을 교차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팩 이상 구매 시 산 설향딸기와 타이백 설향 딸기는 팩당 1만3990원에, 상생 딸기는 1만990원에 선보인다. 금실딸기와 비타베리 딸기는 각 1만4990원에, 스마트팜 딸기는 7990원에 만나 볼 수 있다. 롯데마트는 12월 대왕, 비타킹 등 신품종을 도입해 딸기 라인업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딸기 매대 전경. /롯데마트

을 확대할 계획이다.

딸기 외에도 신품종 실키 핑크 토마토(1kg)를 7990원에, 익혀먹는 대봉감을 9990원에 판매한다. 상생 단감은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990원에 제공한다.

연말 홈파티 먹거리도 할인한다. 1+

+ (9)등급 마블나인 한우 전 품목을 이달 30일까지 엘포인트 회원에게 최대 50% 할인하며, 호주산 와고메 와그는 30% 할인한다. 파타고니아 생연어(500g)는 2만2900원, 광어·방어·연어 모듬회(300g)는 2만9900원, 제철 봉지 굴(260g)은 7990원에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신세계 센텀 스파랜드에 ‘오뚜기 라면랜드’ 세븐일레븐, 반도체 품은 ‘HBM 칩’ 선택

오뚜기, 부산에 이색체험공간 오픈

오뚜기가 조선포털엔리조트가 운영하는 부산의 대표 찜질스파인 ‘센텀 스파랜드’와 협업해 이색 체험 공간인 ‘오뚜기 라면랜드’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K-라면 문화를 스파랜드의 인기 체험 콘텐츠와 접목해 내·외국인 방문객 모두에게 새로운 K-푸드 & K-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뚜기 라면랜드’는 한국 여행에서 필수로 꼽히는 ‘찜질스파’와 ‘라면’ 조합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형 공간이다. 실제로 스파랜드 방문객 중 약 50%가 외국인일 만큼 부산을 찾는 관광객 사이에서 찜질스파 체험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문객들이 스파랜드에서 휴식을 즐긴 뒤 오뚜기의 다양한 라면을 직접 맛보며 한국식 라면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대표 라면 ‘진라면’을 비롯해 20여 종의 다양한 라면을 만나볼 수 있다. 방문객들은 스파랜드에서 휴식을 즐긴 뒤 다양한 오뚜기 라면을 직접 맛보며 K-라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공간 곳곳에서 브랜드 콘셉트를 체험하고 이를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뚜기 라면랜드’는 25일부터 운영 중이며 상세 정보는 오뚜기 및 스파랜드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하이닉스와 이색협업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손잡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스낵으로 재해석한 세븐셀렉트 허니바나나 맛 HBM 칩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편의점과 반도체 산업의 협업은 이번이 업계 최초다.

이번 제품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용 초고성능 메모리 HBM을 언어유희를 통해 허니바나나 맛(Honey Banana Mat) 스낵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공략하려는 세븐일레븐과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는 SK하이닉스의 니즈가 맞물려 성사됐다.

허니바나나맛 HBM 칩은 실제 반도체 칩을 연상시키는 네모난 모양의 옥수수 칩에 달콤한 허니바나나맛 크림을 입혔다. HBM의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입안에서 빠르게 퍼지는 풍미로, 나노 단위의 정밀함을 균일한 두께의 바삭함으로 표현했다.

패키지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휴머노이드 캐릭터가 디자인됐으며, 30종의 캐릭터 스티커 중 1개가 무작위로 동봉된다. 세븐일레븐은 스티커 뒷면의 번호를 자사 앱에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순금 10돈, 순금 1돈, 에어팟 프로3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또한 출시일인 26일에 맞춰 SK하이닉스 신제품 발표회 형식을 빌린 광고 캠페인도 공개된다.

/손종욱 기자